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

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
지방정부의 대응
- 장인성 통신원(독일)

지방재정

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
안전한 지역 만들기:
미국 시카고의 안전 등하굣길 프로그램
(Chicago's safe passage program)
- 이상원 통신원(미국)

지방재정

지방세원 편중을 둘러싼
일본 중앙정부와 도쿄도의 대립
- 국중호 통신원(일본)

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: 미국 시카고의 안전 등하굣길 프로그램 (Chicago's safe passage program)

개요

- 최근 국내에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고 있음.
- 특히, 맞벌이 부모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자녀들의 등·하교(원)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등·하교(원)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임
- 등하굣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시카고 시의 안전 등하굣길 프로그램 (Safe passage program)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

학교 주변 범죄와 위험한 등·하교 환경

- 학교가 위치해 있는 주변 환경은 아동 범죄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. 안타깝게도, 미국의 많은 학생들은 매우 위험하거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내 혹은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음.
- 미국의 3분의 1의 해당하는 숫자의 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개인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해봤다고 응답함¹⁾
- 미국 내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, 학생들의 38%가 등하굣길에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²⁾
- 아울러, 많은 관련 연구들은 학교 주변의 위험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주장함. 특히, 학교 주변 범죄의 노출은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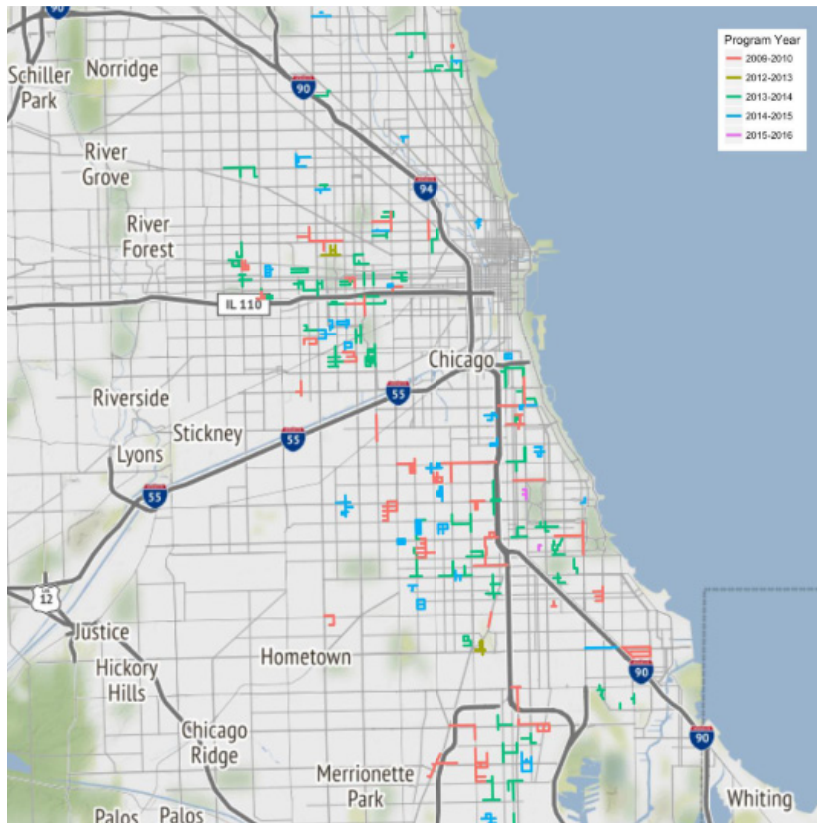
1) Bowen and Bowen (1999)

2) Everett and Price (1995)

3) McCoy et al. (2013) and Sharkey (2010)

시카고 시의 안전 등하곳길 프로그램 (Safe passage program)

- 미국 내에서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시카고 시에서는 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정책 중의 하나로, 2009년에 공립학교, 경찰, 그리고 지역 단체들이 협력하여 안전 등하곳길 프로그램 (Safe passage program)을 도입함
 -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35개 학교로 시작으로 2016년에는 시카고 내의 20%의 해당하는 140개의 학교로 확대됨



| 그림 1 | 시카고 시의 연도별 안전 등곳길 지정 현황

-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들 주변에 안전한 등곳길을 지정하고, 이 구역에 안전요원 혹은 도우미들을 배치함
 - 지역 주민 혹은 아이들의 부모나 할아버지·할머니들로 구성되는 안전요원들은 엄격한 신원 조사,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발 됨
 - 경찰과는 다르게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, 체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는 않음

- 안전한 등하굣길은 학생들이 주로 집과 학교를 오고 가는 보행 길과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설정되며, 이를 나타내는 지도는 각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됨
- 2016년 기준, 약 1,300명의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, 학기 중 일일 평균 5시간씩 일을 하게 됨 (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30분씩)
- 안전요원들은 시간 당 10 달러의 급여 받음
 - 이 프로그램의 총 비용으로 연간 17,800,000 달러 (약 210억원) 소요되며 (2016년 기준), 비용은 관련 학군, 시카고 시, 그리고 시카고가 속해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 부담함
- 안전 등하굣길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, 2년간 20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봄
 - 시카고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,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들 주변의 범죄가 20% 감소하였고,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7% 증가하였음⁴⁾

안전 등하굣길 프로그램의 범죄 감소 효과

- 최근 관련 연구들은 이 프로그램이 학교 주변 범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평가함
- McMillen et al. (2019)에 따르면, 2년 이상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온 학교들은 약 20%의 학교 주변 강력 범죄의 감소를 경험해 왔으며, 비 참여 학교들과 비교해 약 2.5%의 학교 출석률의 증가를 보임
 - 출석률의 증가는 안전해진 학교 주변 환경에서 기인하며, 이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함
- Curran (2019)의 연구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줌
 - 안전 등하굣길로 지정된 구역은 그렇지 않은 인접 구역과 비교해 6~17% 범죄의 감소를 보임
 - 특히, 등·하교 시간의 학교 주변 범죄가 이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하였음
 - 이 프로그램은 학교 주변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건 당 대략 23,000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지만, 실제로 범죄 한 건당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안전 등하굣길 프로그램은 제도적 실효성이 있음

국내 지방정부의 유사한 프로그램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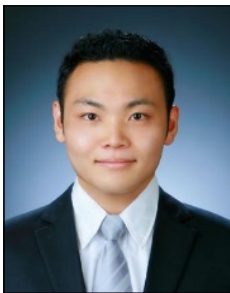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 이상의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

4) <https://home.chicagopolice.org>

- 하지만,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,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진
- 등·하교 시에 각종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유괴·폭력과 같은 어린이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임
- 인천시, 부천시, 청주시, 군산시, 거제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'워킹스쿨버스'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시범 사업을 실시함
 - 학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에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
 - 그러나,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
 - 이 사업 또한 어린이 범죄 예방보다는 교통안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

시사점

- 아동대상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국내의 상황에서, 사실 등·하교(원) 도우미 수요의 급증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소득 불균형 현상과 연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임
- 이에 미국 시카고 시의 안전 등하굣길 프로그램은 학교 주변 아동·청소년 범죄 감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됨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해당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줌
-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, 범죄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,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효과, 그리고 저 출산시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범죄 문제에 대처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



이상원 통신원

(University of Tennessee 경제학 박사 과정)
slee108@vols.utk.edu